

#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황석우의 시세계

전 미 정\*

1. 머리말
2. 자연의 여성성과 생명 탐구
3. 가이아 원리로서의 '자연-여성'
4. 관능적 자연과 에코에로티시즘
5. 맺음말

---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 국문초록

생명에서 출발하는 세계인 에코페미니즘은 황석우 시인의 시적 정신의 핵심이다. 그의 시에서 자연과 여성이 시적 의미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 탕구에 몰입했던 황석우 시인에게 성적인 묘사는 생명을 구가하는 수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코페미니스트에게 에로티시즘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몸성의 자연은 곧 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때 자연의 몸은 주로 모성성을 환기하는 여성의 몸에 집중되어 있다.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원초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에코페미니즘은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에코에로티시즘이다. 에코에로티시즘은 자연을 여성의 관능적인 신체에 비유하고, 관능성을 모성화하면서 생명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원시적 삶이 황석우 시인이 추구했던 유토피아의 세계인 것이다. 보존과 안정에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관능화된 자연, 그물망으로서의 자연, 모성화된 자연이라는 시의 패러다임을 낳게 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근거로 그의 시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 자연, 여성, 생명, 몸, 생태학, 에로티시즘, 에코페미니즘, 에코에로티시즘, 가이아, 모성성, 순환성, 유토피아

## 1. 머리말

황석우의 시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시집 『자연송』<sup>1)</sup>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주된 관심은 자연과 여성이다. 그런데, 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이나 여성은 20년대 다른 시인들의 시와는 처음부터 그 출발을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물론 자연과 여성에 대한 형상화가 당시 시단과 완전히 이질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자연을 소재로 삼은 모든 시가 생태학<sup>2)</sup>에 걸맞는 반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반드시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3)</sup>. 그런 점에서 볼 때, 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이나 여성이 생태학과 페미니즘이라는 두 축의 의미망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적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 자연과 여성은 더 이상 인간중심 문화나 남성중심 문화 속에서 배태될 수 있는 도구적 타자가 아니다. 물론 그 당시 황석우 시인이 생태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야 그러한 세계를 형상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인 자신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1) 『자연송』에 실리지 않았을지라도, 이후에 발표된 시들이 『자연송』의 계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2) 생태학(ecology)은 크게 표층(shallow)생태학과 심층(deep)생태학으로 분류된다. 표층 생태학은 보통 인간중심적 또는 신인동형동성론적 환경론으로 1940년대 말까지 유행했으며, 심층 생태학은 1940년대 말부터 등장하여, 자연을 유기체로 보고 세계를 상호의존적인 현상들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다. 즉 심층생태학은 모든 생물들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을 생명이라는 식물 속에 포함된 씨줄날줄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한신문화사, 2000), p.6, 프리츨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범양사출판부, 1998), pp.22~23.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ed, Deep Ecology (Salt Lake City:Gibbs M. Smith Inc, 1985), pp.65~66.)

3) 강규한, 「문학생태학의 전개 과정과 새로운 가능성」(실천문학, 2003년 겨울호), pp.63~69 참조.

러한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음은 시가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황석우의 시들은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논의들은 주로 상징주의나 아나키즘에 집중해 왔다.<sup>4)</sup> 그러한 논의 중에서도 황석우 시의 유토피아적 성향에 유독 주목한 논의<sup>5)</sup>는 시세계에 대한 보다 본질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토피아는 상징주의와 아나키즘을 아우르는 더 큰 층위의 의미로 통합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세계이다. 그렇다면 황석우 시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그의 문학을 가능하는 잣대가 되어 온 문학 외형적인 형태로서의 상징주의나 아나키즘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유토피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징주의와 아나키즘이라는 외형적인 문학 형태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내적 동질성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유토피아의 실현 방식이 황석우 시세계를 밝힐 수 있는 열쇠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황석우 시에서 유토피아나 생태학의 가능성을 엿보았으나, 심도 있는 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는 시의 면밀한 독서를 통하여 시인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실현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유토피아의 실현 방식이 곧 시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연송』은 1920년 이전과 만주방랑시대인 1923년부터 1928년 8월까지에 해당하는 시기에 창작된 시들이다. 이 시집에서 가난과 그로 인한 슬픔이나 설움, 불평등한 현실과의 갈등이나 원망의 감정들을 직접 찾아보기는 힘들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토피아를 그린 시편들

4) 김학동, 『현대시인연구』(새문사, 1995)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다운샘, 1999)

5) 조두섭, 『황석우의 상징주의시론과 아나키즘론의 연속성』, 『대국어문논총』, 14호(우리말글학회, 1996).

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는 자연과 여성을 중요한 의미축으로 삼는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자연과 여성이 톱니처럼 그 의미가 서로 맞물려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태학과 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을 의미적으로 취하면서 강하게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 생태학과 페미니즘이 동시에 작용하는 곳에서 자연과 여성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성과 관능이 양각화되는 현상도 바로 이러한 생명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에코페미니즘이 에코에로티시즘으로 쉽게 확장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에코페미니즘은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한 방식이며, 그의 시적 정신의 페러다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유토피아를 실현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연의 여성성과 생명 탐구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은 시인의 세계 인식의 바탕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이 문학에서 재현되는 방식들과 자연이 성별, 종족, 계급, 섹슈얼리티의 재현과 연계되는 방식들을 논구하는 중요한 해석의 잣대가 되어준다<sup>6)</sup>.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자연은 더 이상 인간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낭만적인 시적 대상이나 부차적인 배경이 아닌 것이다. 황석우 시의 자연이 다층적인 의미망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에게 자연은 생명을 창조해 내는 주체로서만 의미가 있다. 자연에 대한 본격적인 시적 탐구는 생명에

6) 이소영 외 편역, 앞의 책, p.172.

대한 집요한 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시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리하여내生命이너와갓치빗날수있다면  
 나는네의식스뺨것케타는逆旋風의불가운데라도벌거벗고들어가타서라도바리  
 겐다  
 오오내동무태양아

「내동무태양아」중에서

나방이 죽음을 불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앵페토클 콤플렉스<sup>7)</sup>를 모티프로 취하고 있는 시이다. 앵페토클은 죽음을 동반하면서까지 생명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승격시킨 상징적 인물이다. 여기서 시적 화자가 품고 있는 생명에 대한 열망의 강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생명을 위하여 태양과 하나가 되려는 이 욕망 속에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생명을 얻으려는 반어적 열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920년대에 황석우 시인만큼 생명에 몰입한 시인도 없다. 게다가 그러한 태도가 막연한 생명 예찬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이며 생태학적 시선을 섬세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에는 자연을 자력처럼 상상력 속으로 끌어 들이게 되어 있다. 그러한 생명 남구가 궁극적으로 자신을 신체 언어로 형상화함으로써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자연의 여성성에 몰입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

7) 나방은 불에 의한 죽음을 걸면서까지 태양을 향해 정복해 가는 것에 자주 비유되고 있으며, 그리스 철학자 앵페도클에서 연유한 이 앵페도클 콤플렉스는 바슐라르가 『불의 정신분석』에서 제시한 네 개의 콤플렉스 중 하나이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항성이나 굴광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의 본능은 죽음의 본능과 의미짜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철학자 앵페토클은 말년에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에트나 화산에 뛰어 들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시키며 삶의 본능에서 자신을 파괴,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으려 했다고 한다.(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립 옮김, 『초콜의 미학』(문예출판사, 1991), pp.74~77 참조.)

8) 정화열, 『몸의 정치』(민음사, 2000), p.60.

을 수 있다. 자연과 여성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삶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연의 몸이 모체로서 형상화되는 예가 그것이다.

落葉은  
 풀과  
 나무들의  
 그産後의몸써서내리는것

「落葉」중에서

이 시에서 나무는 산모이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낙엽을 떨구며 이제 겨울 휴식에 들어가는 과정을 산후조리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의 형상화가 몸을 직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생명에 관심을 두는 생태학은 추상적 대상보다 물리적 대상에 더 관심을 둔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몸에 대한 관심을 파생하게 되고 그 관심이 다시 물리적 대상에게로 확장된 결과이다. 추상적인 대상보다는 사물에 관련된 표현들이 더 자주 인체나 신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sup>9)</sup>. 이처럼, 자연과 생명이 동시에 문제시되는 데서 몸에 관련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몸을 의미화 하고 있는 자연이 남성의 몸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동일시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성과 자연이 은유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인체가 생명과 연대하게 되는 순간 여성과 자연의 몸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이 또한 생태학과 페미니즘이 중요한 동반자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에게 몸은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이다<sup>10)</sup>.

9) 정화열, 위의 책, p.60의 각주 54) 참조.

10) 정화열, 위의 책, pp.193~195. 참조.

잠은젓!  
 그는밤의살쨍젓꼭지에서흘어나오는  
 葡萄빛의젓..  
 生物들은타임빼사도우에누어  
 밤의그잠의젓을빨어  
 새는날에運動할새로운生命의힘을배불넘니다

「葡萄빛의젓」 전문

이 시에서도 생명의 새로운 힘은 여성에게서 나온다. “젓”과 “새는날”은 생명의 순환 관계로 단단히 짜여져 있다.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젓은 곧 원초적 시간대의 성격을 강하게 환기하게 된다. 원초적 시간은 단절도 결핍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생물들이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가 되어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생명의 운동성을 잘 표현한 시이다.

이와 같이, 몸을 통해 자연과 여성은 등가적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자연과 여성은 서로에게 은유적 매체가 되어 주면서 생명의 의미를 상승시키는 의미 관계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세계이다.

식스뿔건살기! 그肉은여름의마음쫄각  
 식스뿔건살기! 그肉은여름의마음주머니  
 곳그는여름의마음이나흔알(卵)  
 그속에는여름의사랑이! 魂이들어있다  
 곳그속에는여름의사랑이, 魂이배여있다  
 곳그속에는여름의胎兒가 自己의즐거움「産의날」을우수며 울며가슴조려기들  
 느고있다

「식스뿔건살기」 전문

비코가 마음의 기관인 몸으로부터 언어가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은 몸에 대한 황석우 시인의 생각을 짚 수 있는 유용한 잣대가 될 것이다. 딸기의 “肉”(몸)은 “여름의 마음의 주머니”이다. 몸을 마음의 기관으로 해

석하는 몸 이론가들에게 어울리는 발상법이다. 생태학에서 몸은 마음과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 여기서 황석우 시인의 생태학적 사유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인간과 땅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과 몸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다. 인간과 땅을 분리시켜 보게 되면 역시 마음과 몸도 분리시켜 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인간과 땅을 통합된 관계로 보게 되면 역시 마음과 몸도 통합된 관계로 보게 된다. 몸을 의미의 원천으로 삼는 이론가들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보는 생태학적 사유를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황석우 시인이 맹목적으로 생명을 구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시문학적 의미는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몸에 대한 새로운 천착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다음은 황석우 시에서 형상성이 뛰어난 작품이면서 에코페미니즘 시의 진수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절편이라 할 수 있다.

나무와풀들은  
머리를쌍속으로박고  
그가랑이를한울노向하여벌니고있다  
꽃은곳그들의말하기어려운어느秘密한곳  
花蜜은그들의아릿다운月經液이란다

「나무와풀의生理解」 전문

관능성과 신성함이 묘하게 융해되어 있는 독특한 시이다. 나무와 풀들은 여성의 가랑이와, 꽃은 여성의 생식기와, 그리고 꽃가루는 여성의 월경과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나무와 풀의 몸이 여성의 몸과 관능적 자세를 통해 그대로 겹쳐져 있는 것이다. 벌려진 가랑이와 비밀한 곳이라는

11) 비코, 니체, 메를로 폰티, 마틴 부버, 바흐젠 등을 들 수 있다.

묘사만으로도 이 시는 충분히 관능적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별려진 가랑이와 비밀한 곳으로 환기되고 있는 관능성이 월경에서 다시 한번 극대화되면서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다름 아니라, 월경이 꿀로 비유되어 있다는 자체가 그렇다. 감미로움에는 관능성을 배가시키는 감각적 특질이 있다.

화밀, 즉 꽃 속의 꿀이 여성의 월경에 비유되면서, 월경은 감미로움을 동반하게 되고 관능적인 색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꽃 속의 꿀로서 묘사된 여성의 월경이 이렇게 미각적이며 동시에 시각적 관능성을 띠는 발상법은 독창적이 아닐 수 없다.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성의 월경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사실은 세계 여러 민속 자료에서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월경을 소재로 삼은 것 자체도 낮은 데다가 그것을 아름다운 미각적 물질로 은유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새로운 것이다. 월경을 미적 대상으로서 삼은 것도 그렇고, 월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시는 아마도 현대시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적 형상성은 자연과 여성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적인 눈이 없이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3. 가이아 원리로서의 ‘자연—여성’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이 자율성, 생산성, 순환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해 온 가부장제의 이원론적 토대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전면 비판하는 데서 시작되었다<sup>12)</sup>. 가부장제의 이원론에서 여성과 자연은 언제나 열등하거나 비생산적인 대상으로 폄하되어 왔다는 것이 그 쟁점이다.

12) 꿈지모, 「생태비평 일각의 오만과 독단」, 『환경과 생명』, 29호(사단법인환경과 생명, 2001), pp.187~188.

그런 담론적 성격으로 인해, 순환성과 생산성은 생명의 가치로 곧장 환원되지 않고 여성과 자연이라는 우회로를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자연은 끊임없이 모성의 원리에 기대고 있는 가이아에 그 정체성을 둘 수밖에 없다.

황석우의 시가 자연의 시간대 중에서 봄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봄은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는 계절로서, 모성의 몸과 상동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어느해던가  
 나무가지와  
 흙속에서 「아야야, 애고배야」하고외치길네  
 삼작놀내 「왜그렇니가무엇에滯하셨서요」  
 무릎터니 그들이얼골빨애저對答하되 「안이에요  
 아મા애기가나올려나봐요  
 싹(芽)이, 봄의魂이」

「왜그러심닛가」 전문

땅은 몸과, 봄은 마음과 각각 대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싹은 봄의 혼'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전제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여기서 봄의 혼은 프쉬케<sup>13)</sup>에 해당한다. 프쉬케는 물(物)이나 몸(肉) 위에 있으면서 물과 몸에 상관하면서 그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다. 즉 숨이나 의식을 불어 있도록 하는 생명의 정기이다. 요컨대, 봄의 혼에 불어 있지 않으면 싹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왜그러심닛가」에서 땅은 어머니의 몸에, 봄은 어머니의 혼에 해당한다. 어쨌든 어머니는 식물의 숨줄인 썸이다. 숨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운동이며, 그것의 원동력은 봄이고, 봄은 모체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13) 메야르 드 샤르댕, 양명수 옮김, 『인간현상』(한길사, 1997), p.174. 역주 1) 참조.

봄의職業은꽃製造, 빗創造, 노래創造!  
 봄은곳아릿다운生命을맨드는女流技師!  
 봄은太陽의젊은令夫人!

「봄」 전문

봄은 아예 ‘생명을 만드는 기술자’로 명명되기도 한다. 창조할 때만 봄은 봄다울 수 있다. 그런데, 시인은 봄을 통해서만 생명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인에게 모성성을 지탱해 주는 것은 생명의 순환성이다. 따라서, 가이아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성성만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성에 몰입한 결과, 겨울은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여전히 생명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겨울은 봄의 부활을 고지하는 계절이 될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겨울과 시간상 인접해 있는 봄으로 말미암아 겨울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겨울은 생명의 부활이며, 순환과 영원을 상징하는 계절로 격상하게 된다. 에코페미니즘적 시선만이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의 땅 속에서도 연속되고 있는 생명과 봄의 기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순환성을 통해 발휘되지 않는 모성성은 그 위력을 곧장 상실하고 말기 때문이다.

겨울을尊敬하라  
 겨울은偉大한農夫이다  
 겨울은어-나땅속에 봄을  
 봄의아릿다운生命을심는農夫!  
 흰눈은곳그淨한거름(肥料)!  
 또한겨울바람은그밭가는소의씩씩한소리의잇침!

「겨울을尊敬하라」 전문

이 시에는 또한 그물망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그의 시에서 사계절이 다른 계절과 연쇄적인 의미의 관계망을 이루고 있는 것도 모두 이에 기인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물망적 사고 방식은 생태학의 핵심적 요소이다. 생명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와 연합해 있을 때에만 온전하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물망은 생명을 계속 순환시키는 매커니즘인 것이다.

또한, 황석우 시인이 모든 계절을 노동으로 수용하고 있거나, 생명의 의미로 환원시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노동은 신성한 행위이다. 노동은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은 생명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계절은 모두 그 계절에 걸맞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노동의 형태가 주어진다. 겨울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처럼 더 이상 휴식이나 정지된 시간이 아니다. 생명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겨울은 여전히 생명을 창출하는 노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겨울 또한 생태학적 렌즈를 통해서만 포착할 수 있는 현상이다.

황석우 시에 등장하는 계절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계절들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계절이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시간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의 시에서 계절은 문명세계에서 흔히 시간의 분절을 인식시키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있다. 가이아적 시간의 면모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大地가손힘업시  
 生物을낳는 것은  
 한울과  
 따사회의큰虛空을맺구려는長遠한計劃이랍니다

「虛空을매스구는計劃」 전문

대지 또한 가이아로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시에서 허공에 대한 시공간적 인식을 눈여겨 봐야 한다. '허공'이라는 공간어와 '長遠'이

라는 시간어는 생명의 영원성과 순환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生物을 낳는것은'은 생명을 창조하는 어머니 곧 가이아적 존재로 상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적 인식을 종합하면, 가이아적 존재로 사는 것이 대지의 정체성이며, 곧 자연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전제로 한 관계성, 그리고 순환성을 기초로 성립되는 세계이다.<sup>14)</sup> 획일성, 고립성, 그리고 비순환성은 시간의 정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연속적인 순환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시간을 극복하는 것이 모성의 본질이라는 말<sup>15)</sup>은 이러한 연속적인 시간에 어울리는 말이다. 여성은 아기를 낳는 자로서 생명을 무한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무한의 요소를 시간 속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석우의 시는 충분히 에코페미니즘적이며, 그래서 문제적이다. 또한 이러한 생명의 순환성에 대한 관심과 집요한 탐구가 성을 생명 창조의 원리로 삼고 있는 에코에로티시즘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 4. 관능적 자연과 에코에로티시즘

생명에 대한 탐구는 궁극적으로 성의 세계로 수렴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이 생명의 원천이며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 탐구에 몰입하고 있는 작가에게서 성적인 묘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일한 성적인 묘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가하고 있다면 생태학적 몸에 통합시킬 수 있다. 인간의 낭만적이며 목가적인 대상으로써만 자연의 의미가 제한될 때 인간 중심적이고

14) 문순홍, 『생태학 담론』(솔, 1999), pp.146~148. 참조.

15) G. 르 포르, 김대식 옮김, 『영원한 여성』(성바오로 출판사, 1970), p.111.

비생태학적이 된다. 또한 여성이나 여성의 몸도 남성의 성적 충족이나 낭만적인 대상으로써 제한되거나 전락될 때도 비생태학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지와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삼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전략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대화수단으로 성애화나 제식적인 성교행위를 형상화하려고 시도해 왔다<sup>16)</sup>. 에코페미니스트에게 에로티시즘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석우의 시에서 자연의 몸이 관능화되어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江우나  
 바다우에빚친달은  
 물속에서도-나닐는  
 불기흠어러지게發育된裸體의處女갓힙니다

「江과바다우의달」중에서

이 시도 시인의 다른 시들과의 문맥 속에 넣고 살펴야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에서 “불기흠어러지게발육된나체의처녀”로 표현된 관능적 자연은 곧 자연의 생명력으로 치환할 수 있다. 강과 바다의 물 이미지가 ‘나체의 처녀’와 만나 그 관능성을 극대화시키면 시킬수록 물의 모성성은 증폭되고 있다. ‘발육된나체의처녀’는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모체로서 성장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학에서는 관능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자연은 건강한 몸과 그에 따르는 왕성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다.

가을바람이한울에서  
 휘스파람불고싸우에내려오면

16) 이소영 외 편역, 앞의 책, p.179.

풀과나무들은깊흔밤중이라도  
 잠깨여소리치고  
 그에게응석부리고달녀들어  
 그의키-스를받으며 그의抱擁을받고  
 그에게마음다한모든熱情을받칩니다

「가을바람과풀과나무」 전문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수렴되는 성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생태학이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원초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 의식 속에서 유토피아를 엿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물들간의 성적인 행위는 역동적이며 건강한 자연을 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법이다. 자연의 질서는 생명의 생성순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생명을 전제로 한 성적 행위는 자연 본연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수사법이 되는 것이다. 「가을바람과풀과나무」에서도 풀과 나무들은 가을 바람과의 성 행위를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생명을 잉태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자연이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에로티시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은 본질적으로 세슈일리티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이 가능하다. 에로티시즘은 생물학적 성을 뛰어 넘어 심리학적 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에서의 성은 성 행위 자체의 의미에 만족하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한 생명에 더 관심을 갖는다. 에로스의 이론가인 마르쿠제가 생태 운동이 해방을 향한 심리 운동이며 에로스의 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sup>17)</sup> 이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일차적 충동은 가장 완

17) 허버트 마르쿠제, 「정신분석학적 생태학: 생태학과 현대 사회 비판」, 『생태학 담론』(솔, 1999), pp.50~65, 참조.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이 글을 통해 마르쿠제가 해석한, 프로이트의 두 가지 충동인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일차적인 충동은 고통이 없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갈망이다. 이러한 완성과 자유의 상태는 생명의 초기 상태, 즉 자

전한 생명의 충일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것이 생태학 운동의 핵심이 된다.

요컨대, 자연을 관능화하는 시적 발상법에는 중요한 시적 인식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을 생명의 근원으로 조명하는 해석적 관점이 그것이다. 황석우에게 자연은 모체와 다름없다. 그에게 관능적으로 묘사된 여체는 생명의 의미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봄은 옵니다  
 봄은모든말는나무와  
 어-나짜우에  
 입마스추며옵니다  
 그입술한번스치는곳에는  
 나뭇가지사회와  
 흙속에서 파란  
 어린싹들이입술을쭈뼀뻗며  
 봄의단키-스를더맛보려고벗채는듯히  
 머리췌근췌근치켜들고나옵니다

「싹」 전문

관능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싹」의 관능은 생명으로 그 이미지가 전환된다. “어린 싹”들과 봄과의 입맞춤이 생명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시를 해석하는 주요한 관건이다. 봄과 입맞추려는 어린싹들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싹들의 키는 땅 위로 쭈쭈자라 올라온다. 이렇게 자연의 몸을 형상화하면서 생명과 동등한 의미 자

---

궁 내 삶에서 맛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죽임과 파괴의 본능도 탄생 이전 상태로 회귀하려는 열망에 다름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하려는 갈망은 결국 에로스 곧 생명의 본능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에로스적인 열망은 생명의 만개와 성숙에서 자기 목표를 발견해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생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로스의 충동은 살아있는 것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을 성에다 부여하는 지점에서 에로티시즘은 생태학적 세계와 결합하게 된다.

아스침이슬에저진꽃들은  
밤사회의秘密한享樂에 힘짓친  
머리스뒤늦쳐진  
불타이홀속하고  
눈새스군한식집갓간색씨들갓구료

「아스침이슬에저진꽃들」 전문

이 시는 향락과 퇴폐에 빠진 꽃들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이슬은 꽃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 하루치의 생명력일 뿐이다. 그 물질에 충만히 젖어 있는 관능적인 꽃을 통해 자연은 아름답고 신성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에로티시즘과 생태학을 동시에 의미화시키고 있는 세계를 에코 에로티시즘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생명으로 충만한 가장 이상적이고 질서정연한 상태를 관능성을 통해 획득하려는 작품에 있어서 성애적인 행위들은 생명의 비유적 행위가 된다. 요컨대, 에코에로티시즘은 자연을 여성의 관능적인 신체에 비유하고, 관능성을 모성화하면서 생명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가을날에는大自然의舞蹈會가열린다  
시내와江과바다에는물이춤추고  
山에서는나무가춤추고  
들에서는풀들이춤춥니다  
그러나그들은가을바람과맞싸안는雙舞를춥니다  
가을바람은곳自然界의아릿다운勞動者-물과, 풀과나무들과  
시냇가의舞臺, 江우의舞臺,

들과山畝속의舞臺에서

그들의봄, 여름동안의勞動의勝利를祝賀하는춤추러온젊은童貞男이랍니다 그  
몸에는靑丹楓의 無依를입었답니다

「가을自然의舞蹈」 전문

이 시에서 형상화된 대로 에로티시즘은 생명의 축제이다. 그것은 성 자체가 아니라, 그 성행위가 가져 올 생명으로 충일한 모태나 원초적 시공간을 향한 몸짓의 은유화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에코에로티시즘이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예이다. 춤은 생명체의 원동력이다. 춤은 생명체가 자기 생명의 절정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흥겨운 몸짓이다. 몸이 병들어 있으면 춤을 출 수가 없다. 생태학과 에로티시즘이 만나 에코에로티시즘이라는 독특한 의미 영역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도 몸에 대한 사유에서 그들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몸은 생명의 근원지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생명력으로 충일한 원시적 삶이 황석우 시인이 추구했던 유토피아의 세계이다. 보존과 안정에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관능화된 자연, 그물망으로서의 자연, 모성화된 자연이라는 시의 패러다임을 낳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시 속에 고스란히 스며 있기 마련이다. 생태학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원상보존, 안정, 생물계의 아름다움을 향해 있을 때임<sup>18)</sup>을 주지한다면, 황석우의

18) Sueellen Campbl, "The and Language of Desire", *The Ecocriticism Reader*,

시적 정신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 된다. 에코페미니즘이 그것이다.

시 한편만을 텍스트로 삼는다면, 남성 중심적인 관점이 강한 한국 근현대시의 보편적인 경향에 잘못 편입될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까지 논의한 황석우 시 전체를 남성 중심적이라고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그의 시 전체를 폄하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시인의 세계관은 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비가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신적 궤적은 총체적 접근을 통해서만 의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태양'에 대한 해석이다. 그의 시에서 태양은 남성적 이미지를, 봄은 여성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표면상 충분히 남성중심적이라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황석우의 시에서 태양이 남성을 상징하고 있을 때에라도 그것은 전혀 지배자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 태양은 여성을 상징하는 봄과 함께 조화롭게 모든 생명을 길러 내는 공동의 일꾼일 뿐이다. 즉 남성과 여성이 태양과 봄이라는 단순 대칭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대립이나 상하, 또는 주종의 이원론적 가치에 전혀 기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의 시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굳이 구별하여 해석하려는 것이 무의미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 남자와 여자, 인간과 자연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함으로써 타자들 사이의 다양성과 관계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생태학적 태도 속에는 이미 페미니즘의 싹이 자연스럽게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을 가능하게 한 황석우 시인의 사상적 본질을 잘 보여줄 세계가 바로 에코아나키즘이다. 황석우 시의 에코아나키즘적 특질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다시 개진하려고 한다.

## □ 참고자료

- 황석우, 『자연송』, 조선시단사, 1929.
- 강규한, 「문학 생태학의 전개 과정과 새로운 가능성」, 『실천문학』, 2003(겨울).
- 김학동, 『현대시인연구』, 새문사, 1995.
-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와 생태학적 유도피아』, 다운샘, 1996.
- 꿈지모, 「생태비평 일각의 오만과 독단」, 『환경과 생명』(29호), 사단법인환경과생명, 2001.
- 문순홍 편역, 『생태학 담론』, 숲, 1999.
- 전미정,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2000.
- 조두섭, 「황석우의 상징주의시론과 아나키즘론의 연속성」, 『대구어문논총』(14호), 우리말글학회, 1996.
-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 G. 르 포르, 김대식 옮김, 『영원한 여성』, 성바오로 출판사, 1970.
-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초불의 미학』, 문예출판사, 1991.
- 페야르 드 샤프텡, 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1997.
- 프리츠포 카프라, 『생명의 그물』, 범양사출판부, 1998.
-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ed,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Inc, 1985.
- Cheryll Glotfelty & Harold Fromm, ed, *The Ecocriticism Reader*, Athens and London: Georgia Univ. Press, 1996.

Abstract

## The Poetry World of Seok-wu Hwang through Ecofeminism

Jeon, Mi-Jung

Ecofeminism is the core of poetic spirit of the poet, Seok-wu Hwang. It is the world which is started from life. That's why the source of meaning is from nature and woman. And the quest for life is mixed with a sex problem. Therefore, sexual expression is a rhetorical way to pursue life for Seok-wu Hwang absorbed to explore life.

Likewise, Eroticism can be a problem closely related to life to Ecofeminists. To describe nature using human body means the power of life, where the body of nature is concentrated on woman's body mainly to remind motherhood. That is, the primitive order full of life is recovered through eroticism. Therefore Ecofeminism usually is realized by eroticism. It is the very Eroticism. Eroticism has special features which are comparing nature with woman's sexual body and intending the ideal world filled with life, considering something sexual as motherhood.

It is the world of Utopia which is full of primitive life for Seok-wu, Hwang to have been pursued. The passion of safety and conservation leads him to make the paradigm of poetry. He expresses the nature as a sexualized body, a net, and motherhood. I divide the types of Ecofeminism presented in his poetry into three things based on above the paradigm.

**key words** : nature, woman, life, body, Ecology, Eroticism, Ecofeminism, Ecoeroticism, Gaia, motherhood, circulation, Utopia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